

淸州地域의 佛敎遺蹟

- 廢寺址를 中心으로 -

I. 머리말

淸州地域은 新羅 神文王 5년(685)에 西原小京이 설치된 이래 忠州의 中原京과 함께 충청 지방의 정치·군사·문화적 중심지가 되어 왔다. 이 곳에 불교문화가 언제 처음 유입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확실치 않으나 삼국시대 말기인 6세기말에 조성된 一光三尊石佛이淸원군 북일면 비중리에 있어 이미 삼국시대부터 불교의 전입이 있었음은 물론 거대한 塔像의 造形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淸주시내 동쪽의 洛迦山에 있는 菩薩寺가 신라 眞興王 28년(567)에 義信祖師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문헌기록이나 유물 유적은 없다.

현존하는 사찰 가운데淸주지방의 最古寺刹은 菩薩寺와淸원군 남이면 사동리의 安心寺를 들 수 있으나 확실한 기록이 없고 廢寺址 가운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法燈을 밝힌 곳이 몇 군데 있다. 1983년에淸주시 운천동에서 발견된 新羅寺蹟碑가 神文王 6년(686)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되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淸주에 西原小京을 설치한 직후에 대대적인 佛事가 있었음을 나타내 준다. 또淸주지방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小形의 石造半跏思惟像이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제작시기를 7세기로 추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8세기의 작품으로는 菩薩寺 石造二尊竝立如來像이 있고 9세기 이후의 塔像들은 각지에 많이 남아 있는데 毘盧舍那佛坐像이 특히 많이 보여 華嚴思想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고려와 조선시대에 각각 건립된 桂山里 5層石塔(보물 제511호)과 菩薩寺 5層石塔(지방유형문화재 제65호)을 비롯하여 다수의 불상과 석탑이 폐사지 혹은 길가에 방치되어 있거나 박물관 등지에 옮겨져 있는데 시대별로는 역시 고려시대의 작품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유교의 위세에 눌려 불교가 쇠퇴하였던 조선시대에도 민중적인 불교신앙은 계속 이어져淸주시 용정동에는 불상인지 장승인지 선돌인지 분간이 어려운 順治九年(1652)銘石像이 있다.

淸주지역에는 큰 산과 계곡이 없어서인지 이름난 寺刹은 없으나 산간 곳곳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佛事가 이루어져왔다. 이 글은 문헌과 현지조사를 통한淸주시·淸원군지역의 폐사지에 대한 조사내용이다. 寺址에 유존하거나 출토되는 石造物·瓦當類 등의 유물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고 廢寺址의 現況과 유물의 대략을 알아보려 한다.

II. 淸原地域의 寺刹 및 寺址 現況

이 글에서의 淸原地域은 행정구역상으로는淸주시와淸원군지역을 지칭하며 근대이전의 지방행정구역은 淸州牧과 文義縣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유적을 옛 地理誌에서 찾으

려면 淸州牧條와 文義縣條를 함께 살펴야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조선후기의 각종 邑誌類의 寺刹 또는 佛宇條에 보이는 사찰들은 현재까지 法燈이 전승되는 사찰도 있으나 대부분은 廢寺되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사찰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발굴조사되어 옛 寺名을 찾은 경우도 있고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廢寺址가 확인조사되어 逸名寺址로 분류되는 절터도 다수 있다.

먼저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초기의 기록인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하여 《輿地圖書》·《忠淸道邑誌》·《湖西邑誌》·《朝鮮輿地勝覽》의 佛宇 또는 寺刹條에 사찰의 위치와 존재사실을 적고 있다. 특히 《輿地圖書》에는 坊里條에 사찰의 위치는 물론 編戶數와 男女人口數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밖에 《淸州邑誌》·《琅城誌》·《文義邑誌》 등이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 《忠淸道邑誌》·《湖西邑誌》와 별차이가 없다. 이들 지리지에 나타난 사찰을 표로 작성하여 일람하여 보면 <표 1> 과 같다. 단 《淸州邑誌》·《琅城誌》·《文義邑誌》 또는 《忠淸道邑誌》의 내용과 별차이가 없는 관계로 생략한다.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地理誌에 나타나 있는 사찰은 36개소이다. 이 가운데 이미 廢寺된 것으로 명기된 사찰이 8개소이며 《輿地圖書》 坊理條에 보이는 玉溪寺 등 10개의 寺菴에 대해서는 다른 지리지에 일체의 언급이 없다. 그리고 空林寺·道明寺·煥章菴 등 3개 사찰은 1914년의 행정구역개편으로 槐山郡에 편입된 靑川面에 있어 실제 청주시·청원군내의 사찰수는 33개이다. 이들 가운데 현존하는 사찰은 근대에 창건된 龍華寺(思惱寺址)와 蓮華寺를 포함하여 菩薩寺·花林寺(化林寺)·懸岩寺·安心寺·瑞氣寺(瑞氣菴)·牧牛寺(牧牛菴)·東華寺(南水院佛堂)·月裡寺 등 10개 사찰이다. 따라서 지리지에 기록된 사찰 가운데 廢寺址는 23개소이다.

이밖에 문헌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현지조사를 통하여 옛 폐사지로 확인된 유적도 24개소 정도에 이른다. 이들 폐사지는 이미 오래전에 폐허가 되어 이름을 잃은 逸名寺址들이나 이 중에는 銘文遺物의 출토로 寺名을 되찾은 경우도 있으니 興德寺址·旬陽寺址·興泉寺址·天興寺址·金生寺址 등이 그 실례이며, 지금의 龍華寺 자리에는 思惱寺가 있었음이 최근에 밝혀졌다.

문헌기록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청주시·청원군내에서 확인된 폐사지는 47개소인데 이들중 寺名을 알 수 있는 有名寺址는 29개이고 寺名을 알 수 없는 逸名寺址는 18개

<표1> . 地理誌에 나타난 淸州地域의 寺刹現況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忠淸道邑誌	湖西邑誌	朝鮮輿勝覽	비고
1. 空林寺	○	○	○		현 괴산군
2. 應天寺	○		○		
3. 桐林寺	○		○		
4. 松泉寺	●		●		
5. 東歡喜寺	○				
6. 菩薩寺	○	○	○	○	
7. 化林寺	●				
8. 靈泉寺	○(靈山寺)				
9. 石岩寺		●	●		
10. 見佛寺	○	○	○	○(懸寺)	현懸岩寺
11. 妙高寺		●	●		
12. 維摩寺		●	●		
13. 奉先菴		●	●		
14. 成佛寺		●	●		
	15. 道明寺	○	●		현 괴산군
	16. 安心寺	○	○	○	
	17. 瑞氣菴	○	○		현瑞氣寺
	18. 牧牛菴	○	○		현牧牛寺
	19. 煥章菴	○	○		현 괴산군
	20. 龍子菴	○	○	○	
	21. 九龍寺	○	○		
	22. 南岳寺	○	○		
	23. 淸心寺	○(淸心菴)	○		
	24. 玉溪寺				坊里條
	25. 山城寺				"
	26. 奉鳥菴				"
	27. 玉龍寺				"
	28. 東林菴				"
	29. 栗峙菴				"
	30. 岳秀菴				"
	31. 栗谷菴				"
	32. 上雲菴				"
	33. 南水院佛堂				현東華寺
	34. 月裡寺	○	○	○	
				35. 蓮華寺	1923년 창건
				36. 龍華寺	1902년 창건

(●은 폐사된 것으로 기록된 사찰)

이다. 그러나 폐사지는 아직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逸名寺址의 수는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 산간 곳곳에 있는 크고 작은 근래의 사찰도 옛 폐사지에 신축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학술적인 발굴조사, 지표 조사가 실시된 寺址로는 興德寺址·句陽寺址·內谷洞寺址·飛中里寺址·金生寺址·松泉寺址·桂山里寺址 등이 있다.

청원지역의 폐사지를 절이름을 알 수 있는 有名寺址와 절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逸名寺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다.

Ⅲ. 有名寺址

1. 銘文遺物로 확인된 有名寺址

1) 興德寺址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卷下の 刊記에 “宣光七年丁巳七月 日 淸州牧外興德寺 鑄字印施”라고 하여 淸州 興德寺에서 高麗 禡王 3년(1377)에 金屬活字로 책을 인쇄한 사실을 明記하였다.

靑銅禁口와 靑銅佛鉢에 각각 “甲寅五月 日 西原府興德寺 禁口壹坐改造 入重參拾貳斤印”

“皇統十年庚午四月 日 興德寺依止重大師領仁 往生淨土之원 佛鉢一盒具銀雲口 入重二斤 二兩印”이라는 명문이 興德寺址임을 확인하였다.

2) 句陽寺址

1984~1985년에 발굴조사한 후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었다. 1970년 이곳에 民家를 건축하다가 銅鐘과 金銅菩薩立像·禁口·香爐 등을 발견하여 廢寺址로 처음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로 寺址의 전모가 드러났다. 禁口에는 “己巳六月 日 句陽寺口一重十三斤八兩 棟梁道入惠長改造 大匠及三”이라는 陰刻文이 있어 句陽寺라는 寺名이 확인된다.

3) 龍頭寺址

龍頭寺址鐵幢竿의 주변에 있었던 폐사지로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銅檣 在州城內龍頭寺 寺廢而檣在焉 高十餘丈 世傳初設州時用術者言建此以表行舟之勢”라고 하여 朝鮮初에 龍頭寺는 이미 廢寺되고 鐵幢竿만이 있었음을 밝혀준다.

龍頭寺에 대한 직접사료는 없으나 사지에 남아있는 鐵幢竿의 3번째 鐵筒에 양각된 幢竿記에 “維峻豐三年 太歲壬戌三月二十九日鑄成”라고 하여 高麗 光宗 13년(962)에 鐵幢竿을 鑄成하는 등의 大役事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龍頭寺의 창건은 그 이전으로 淸州地方의 豪族 勢力과 깊은 관련이 보인다.

그리고 《輿地圖書》를 비롯한 각 邑誌에 “菩薩寺錦口 古庚申八月 州人穿土得古鐘 有刻云大安六年 龍頭寺錦口 其制奇古 聲聞數里”라고 하여 고려 高宗 元年(1214)에 제작한 錦口(禁口)가 발견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13세기 초까지도 龍頭寺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興泉寺址

우암산 산정부 남쪽 계곡에 있는 사지이다. 1970년에 恩德寺를 개축하다가 靑銅鉢 1점과 鐵鑊 및 銅鐘 1점이 출토되었고 1980년의 지표조사에서는 “興泉” 銘瓦片이 발견되었다.

5) 天興寺址

우암산 정상부 남쪽 계곡 興泉寺址의 아래쪽에 있다. 1980년의 지표조사에서 “天興寺” 銘瓦片이 출토되었다.

6) 金生寺址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에 있는 사지로 현재는 대청댐으로 수몰되었다. 1977년 문화재관리

국에서 발굴하였다. “金生寺 太平興國”, “金生寺講堂草” 등의 銘文瓦가 다수 발견되어 金生寺라는 절이름과 고려 成宗 2년(983)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地理誌에 기록된 有名寺址

1) 九龍寺址

청주시 산성동 上黨山城 南西暗門의 안쪽에 있다. 조선후기의 지리지에 “九龍寺南岳寺清心寺 俱在上黨山城”(輿地圖書), “九龍寺南岳寺清心寺 俱在州東二十里上黨山城內”(忠清道邑誌, 湖西邑誌, 清州邑誌)라 하여 청주의 동쪽 20리 상당산성내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上黨山城古今事蹟記》에는 조선 肅宗 46년(1720)에 化主僧 彩淡이 九龍寺를 창건한 사실이 적혀 있다. 사찰 규모는 《輿地圖書》에 66間으로 기록되어 있어 비교적 큰 절이었던 것 같다.

현재 상당산성 南門(控南門) 앞에 있는 九龍寺事蹟碑는 조선 英祖 40년(1764)에 恩齋居士가 撰하고 篆書하여 건립되었다.

2) 南岳寺址

상당산성내에 있는 폐사지로서 구룡사지 아래쪽에 위치한다. 조선후기의 지리지에 九龍寺·清心寺와 함께 청주의 동쪽 20리 上黨山城內에 있다고 기록되었으며 조선 純祖 22년(1882)경에 충청병영 우후 柳億이 그린 《上黨山城圖》와 《輿地圖書》의 〈上黨山城圖〉에 성안 남쪽에 南岳寺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上黨山城古今事蹟記》에는 조선 英祖 元年(1725)에 化主 雙訥과 別座 彩淡 스님이 南岳寺를 창건한 사실이 적혀 있다. 사찰규모는 66間으로 비교적 큰 것으로 기록에 보인다.

3) 清心寺址

상당산성내 西門의 남동쪽 使令廳址의 서쪽에 있다. 조선후기의 지리지에 九龍寺·南岳寺와 같이 청주의 동쪽 20리 상당산성안에 있다고 하였다. 읍지에는 清心菴이라 기록되어 있어 九龍寺나 南岳寺에 비해서 작은 암자였음을 시사한다. 《輿地圖書》忠清道兵營 公廨條에는 城內의 사찰을 소개하면서 “九龍寺六十六間 南岳寺六十六間 將臺寺十六間 僧將一名”이라 하여 九龍寺와 南岳寺는 나타나는데 清心寺는 기록이 없고 대신에 將臺寺가 나타나고 있어 將臺와 인접한 清心寺를 將臺寺로 별칭한 것으로 생각되며 규모는 작아 16間에 불과하다.

4) 山城寺址

《輿地圖書》清州牧 坊里條 山內二下面에 “山城寺 自官門東距十五里 編戶二十五戶 男三十一口”라고 하였다. 同書에 上黨山城이 청주 동쪽으로 15리에 있다고 하여 같은 거리이고 “山城寺”라는 절이름으로 보아 대략 상당산성 주변에 있거나 혹은 산성 안에 있던 九龍寺·南岳寺·清心菴을 총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5) 奉鳥菴址

《輿地圖書》清州牧 坊里條 山內二下面에 “奉鳥菴 自官門東距九里 編戶五戶 男六女三口”라고 하였다. 위치는 불명이다.

6) 應天寺址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지에 “應天寺桐林寺松泉寺 俱在龍子山有…”(新增東國輿地勝覽), “應天寺桐林寺龍子菴 俱在龍子山”(輿地圖書), “應天寺桐林寺龍子菴 俱州西四十里 龍子山下”(湖西邑誌), “應天寺桐林寺 俱廢”(淸州邑誌)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지금의 청원군 옥산면 동림산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7) 桐林寺址

청원군 옥산면 東林里의 ‘上東林’ 마을에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각종 지리지에 應天寺·松泉寺 또는 龍子菴과 함께 청주의 서쪽 40리 龍子山 아래에 있었음을 명기하고 있다. 《淸州邑誌》에는 洞林寺로 기록되었는데 桐林寺의 誤記로 보인다. 그리고 《輿地圖書》의 〈淸州牧地圖〉에 桐林寺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龍子山 龍子菴의 남쪽으로 되어 있다.

8) 松泉寺址

청원군 옥산면 歡喜里의 ‘松泉’ 마을 절터골에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應天寺桐林寺松泉寺 俱在龍子山有 李穡所撰懶翁眞堂記”라고 하였고, 《輿地圖書》에는 “松泉寺 在龍子山有 李穡所撰懶翁眞堂記 今廢”라고 기록. 牧隱 李穡(1328~1396)이撰한 懶翁眞堂記가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松泉寺의 창건시기는 고려말 이전이 확실하며 《輿地圖書》가 완성된 英祖 41년(1765) 이전에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지에 있던 八角石燈의 屋蓋石이 江外初等學校 郷土博物館 앞 뜰에 옮겨져 있다.

懶翁眞堂記의 原題는 〈淸州龍子山松泉寺懶翁眞堂記〉로서 《牧隱集》에 그 全文이 실려있다.

9) 龍子菴址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金城’ 마을 뒤의 東林山 중턱에 있는 폐사지이다. 龍子菴은 1978년의 사찰정리에 의하여 철거되어 금성마을로 이전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龍子菴이 나타나지 않고 《輿地圖書》부터 기록되었다. 《淸州邑誌》에 “龍子菴 在州西四十里 龍子山下”라고 하여 청주의 서쪽 40리에 있는 龍子山 즉 지금의 東林山 아래에 있는 龍子菴을 소개하고 있으며 《忠淸道邑誌》·《湖西邑誌》·《琅城誌》에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그리고 《輿地圖書》의 〈淸州牧地圖〉에는 龍子山 동쪽 기슭에 龍子菴을 표시하였는데 그 남과 북에는 應泉寺와 桐林寺가 있다.

10) 玉溪寺址

《輿地圖書》淸州牧 坊里條 山內二下面에 “玉溪寺 自官門東距三十里 編戶十一戶 男二十口女一口”라고 하였다. 山內二下面의 玉溪里라는 지명이 《輿地圖書》에 보이는데 지금의 미원면 月龍里 玉溪洞이므로 이 일대에 玉溪寺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11) 玉龍菴址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의 ‘절골’이라 불리는 골짜기에 있다. 《輿地圖書》 淸州牧 坊里條에 “玉龍菴 自官門東距四十里 編戶二十九戶 男三十六口女三口”라 기록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사찰이 있을 당시에는 그 아래 계곡에 100호의 民家가 있었으며, 도적들에 의하여 폐사되었다고 한다.

12) 東林菴址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의 ‘동림마을’ 또는 ‘동역골’ 로 불리는 마을에 있다. 《輿地圖書》 淸州牧 坊里條에 “東林菴 自官門東距四十里 編戶四戶 男四口女一口”라고 기록되었다.

13) 栗峙菴址

《輿地圖書》 淸州牧 坊里條 山內一面에 “栗峙菴 自官門東距四十里 編戶五戶 男六口女三口”라고 기록되었다. 山內一面의 栗峙里라는 마을 이름이 《輿地圖書》에 보이고 미원면 내산리에 栗洞(속칭 밤골)이라는 마을이 있어 대략 이 근처에 栗峙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뚜렷한 유적은 없다.

14) 岳秀菴址

《輿地圖書》 淸州牧 坊里條 山內一面에 “岳秀菴 自官門東距四十里 編戶三戶 男二口女二口”라고 기록되었다. 위치는 불명이다.

15) 九龍寺址

상당산성내의 九龍寺址와는 다른 폐사지로서 위치를 알 수 없으나 《輿地圖書》 淸州牧 坊里條 山內一面에 “九龍寺 自官門東距三十里 編戶六戶 男六口”라고 기록되었다.

16) 栗谷菴址

《輿地圖書》 淸州牧 坊里條 山內一面에 “栗谷菴 自官門東距三十里 編戶五戶 男五口女一口”라고 기록되었다. 위치는 불명이다.

17) 上雲菴址

청원군 미원면 운용리의 ‘上雲’ 마을에 있는 폐사지로 추정된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큰 절터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輿地圖書》 淸州牧 坊里條 山內一面에 “上雲菴 自官門東距三十里 編戶四戶 男九口”라고 기록되었다.

18) 石岩寺址

청원군 현도면 下石里의 ‘魯峰’마을에 있는 폐사지이다. 각종 지리지에 “石岩寺見佛寺 俱在九龍山”(新增東國輿地勝覽), “石岩寺 勝覽 今廢 爲魯峰書院”(忠淸道邑誌, 湖西邑誌, 文義邑誌)등으로 九龍山에 있다는 사실과 조선후기에 폐사된 후 魯峰書院이 세워진 사실을 알 수 있다. 魯峰書院은 《輿地圖書》에 “魯峰書院 在縣西十五里賢都山 石巖寺舊址 萬曆庚戌創建…”이라고 하여 萬曆庚戌 즉 光海君 2년(1610)에 건립. 따라서 石岩寺는 17세기초 이전에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書院은 高宗 2년(1865)에 철 폐되어 지금은 밭이 되어 있다.

사지에서는 石岩寺와 魯峰書院에서 사용되었던 건물지 기단축대와 주초석 그리고 고려·조선시대의 자기·토기편과 기와편이 발견된다.

19) 妙高寺址

청원군 부용면 蘆湖里의 ‘묘기’ 마을 뒷산인 華峰山 중턱에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妙高寺 在國師郎山”이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대략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는 존재하였음이 분명하다. 國師郎山은 지금의 老姑峰에서 華峰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말한다. 묘고사의 폐사시기 역시 확실하지는 않으나 英祖代에 간행된 《輿地圖書》에 國師郎山이나 묘고사에 대한 언급이 없고 조선말기의 《忠淸道邑誌》나 《湖西邑誌》 또는 필사본으로 된 《文義邑誌》 등의 文義縣 佛宇條에 “妙高寺 在國師郎山 勝覽 今無”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지에서는 고려시대의 기와편이 약간 발견되며, 파손이 심한 석종형 부도가 남아 있다.

20) 維摩寺址

청원군 남이면 文東里의 ‘부처대’ 마을 뒷산에 있는 절터로 추정되는데 조선 전·후기의 지리지에 “維摩寺 在大明山”(新增東國輿地勝覽), “維摩寺 在大明山 勝覽 今無”(忠淸道邑誌, 湖西邑誌, 文義邑誌)라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초에는 大明山에 維摩寺가 있다고 하였으나 조선말기의 기록에는 勝覽에 보일 뿐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다.

21) 奉先菴址

조선시대의 지리지에 “奉先菴 在槐方山”(新增東國輿地勝覽), “奉先菴 在槐方山 勝覽 今不知其何處”(忠淸道邑誌, 湖西邑誌, 文義邑誌)라고 하여 조선초에 奉先菴이 槐方山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말기의 기록처럼 이미 폐사된지 오래되어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22) 成佛寺址

조선시대의 지리지에 “成佛寺 在摩物城山”(新增東國輿地勝覽), “成佛寺 在摩物城山 勝覽 今無”(忠淸道邑誌, 湖西邑誌, 文義邑誌)라고 하여 조선초까지 摩物城山에서 法燈을 밝혔음을 알 수 있다. 위치는 불명이다.

IV. 逸名寺址

1) 산직말寺址

청주시 운천동 ‘산직말’에 있었으나 현재는 택지로 개발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 1982년 3월에 “淸州雲泉洞新羅寺蹟碑” 발견. 건립연대는 西原小京이 설치된 다음해인 神文王 6년(686)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적비라 할 수 있다.

2) 塔洞寺址

청주시 탑동에 있는 폐사지로 五層石塔이 남아 있다. 석탑은 본래 2층 기단이었을 것이나

현재 상대감석 이하의 기단부가 결실되고 탑신부도 3층만이 남아 있다. 1층 옥신에는 각면에 각 1구씩의 여래좌상을 浮彫한 四方佛이 배치되어 있다.

3) 大成洞寺址

청주시 대성동 청주향교에 있는 사지이다. 향교에는 폐사지와 관련이 있는 석탑의 옥개석 등 석재들이 남아 있으며, 충북도지사 관사 안에도 잘 다듬어진 초석·석등의 하대석·주심포석·석등의 火舎石 등이 있다.

4) 內谷洞寺址

청주시 내곡동에 있는 사지로 1986년도에 발굴 조사하였다. 이곳의 석불은 머리부분은 없어졌으나 당당한 체구로 비교적 큰 불상이다. 조성시기는 대략 고려전기로 추정된다.

5) 飛中里寺址

청원군 북일면 비중리의 속칭 ‘선돌거리’ 있는 사지로 一光三尊石佛과 石佛立像·光背石 등이 남아 있다.

1991년과 92년에 각각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뚜렷한 유구는 찾아내지 못했고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편과 기와편을 수습함으로써 오랫동안 佛事가 계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조선후기에는 구릉지에 매우 작은 불당을 짓고 一光三尊佛像 이나 石佛立像을 봉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광삼존불상은 삼국시대인 6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고구려·백제·신라 가운데 어느 국가 소속인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밖에 석조여래입상과 석조광배도 6세기 후반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6) 靈下里寺址

청원군 북이면 영하리 속칭 ‘탑선이’ 마을에 있다. 일제때 石塔의 기단부에서 나온 舍利器에서 ‘龍門山 興福寺’ 라는 명문이 찾아졌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興福寺址라 불려지기도 한다.

마을의 곳곳에 주초석과 장대석들이 흩어져 있으며, 한 민가 안에는 5층 模塼石塔이 놓여 있다. 또한 5구의 석불과 2구의 仁王像은 1964년에 조사 발표된 바 있으나, 그 후 반출되어 행방을 찾을 수 없다.

이 사지의 남쪽 야산 속칭 ‘건대마을’ 동쪽 북사면에서 1975년에 석조여래좌상이 발견되어 현재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전시되고 있다.

7) 謳羅山城寺址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와 종암리 뒷산인 謳羅山城(속칭 九女山城) 안에 있는 폐사지로 1979년까지 “句麗寺” 라는 작은 사찰이 옛 절터에서 香火를 올리고 있었으나 1979년에 사찰 정리되면서 句麗寺를 미원면 종암리로 이전함으로써 사지는 다시 폐허가 되었다.

사지에는 頭部를 결실한 石造如來坐像과 측면에 唐草紋을 양각한 화강석재의 石階 소맷돌이 유존하고 있었는데, 石佛은 신축한 句麗寺로 옮겨서 모셔져 있다. 이들의 조성연대는 대

략 통일신라대로 추정된다.

8) 桂山里寺址

청원군 가덕면 계산리 '장터' 마을에 소재한 폐사지로 皮盤嶺을 배산으로 북향한 대지에 자리잡았다. 사지에는 5층석탑이 있을 뿐 건물지는 1980년대 초에 주변이 논으로 개간되면서 완전히 유실되어 원형을 알 수 없는 실정이며 석탑 근처에서 기와편이 출토된다.

9) 閑溪里寺址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노계' 마을에 있는 폐사지로 마을 앞 정자나무 옆에는 石造毘盧舍那佛坐像이 있다.

10) 靑龍里寺址

청원군 가덕면 청룡리 '元靑龍' 마을 동쪽에 있는 폐사지로 절이름이 靑龍寺이었다는 口傳이 있다. 주초석으로 사용되었을 듯한 石材와 토기편·화편이 주변에서 발견되며 廢石塔 1기가 남아 있다.

11) 上鉢里寺址

청원군 남이면 상발리 속칭 '양절마을(陽寺洞)'에 있는 폐사지이다. 사지는 현재 밭이 되었으며 주변에서 고려·조선시대의 와당과 평기와편이 발견되고 頭部를 결실한 石佛坐像 6軀가 따로 保護閣 안에 보존되고 있다.

12) 山德里寺址

청원군 문의면 산덕리에 있는 폐사지로 1980년에 金銅如來立像이 발견되었다. 불상의 조성시기는 통일산라말의 9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13) 槐亭里寺址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탑산골' 마을 남쪽에 있는 폐사지로 현재 밭으로 변하여 원형을 알 수 없으나 밭둑에 석조여래입상이 있다. 석질이 좋지 않은 花崗岩으로 조성되어 마멸이 심한 편이지만 각부는 잘 보존되어 있다. 통일신라의 작풍을 보이고 있어 대략 9~10세기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14) 倉里寺址

청원군 오창면 창리 '한절골' 혹은 '부처당골' 이라 불리는 마을의 서쪽 야산에 있다. 석조 보살입상 1구가 현존하고 있다. 조성시기는 고려중기 이후로 추정된다.

15) 塔里寺址

청원군 오창면 탑리의 속칭 '탑골' 마을에 있다. 사지의 북쪽 밭둑에는 石造毘盧舍那佛坐像 1軀가 있어 주목되며 이러한 유물로 미루어 대략 고려시대에 법등이 밝혀졌던 사찰터로 추정된다.

16) 玄岩里寺址

청원군 북일면 현암리의 ‘탑선이’ 라 불리는 청주~충주 사이의 국도 서편 야산에 있다. ‘탑선이’ 또는 ‘탑고개’ 라는 지명으로 보아 옛날에 탑이 있던 폐사지임을 알 수 있으나 현재 탑이나 사찰유구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17) 內揪里寺址

청원군 북일면 내추리의 속칭 ‘부처당골’ 이라 불리는 야산에 있다. 동향의 작은 계곡을 이룬 지역이 옛 절터인데 협소한 지형으로 보아 작은 암자터로 추정된다.

조각수법이 양호한 石佛立像 下半部와 蓮花臺石·石塔의 屋蓋石 등이 유존하였으나, 1989년에 도난당하여 없어졌다.

18) 荊東里寺址

청원군 북일면 형동리의 속칭 ‘한절골’ 에 있는 폐사지로 유구는 남아 있지 않고 과수원 일대에서 기와조각이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사지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石造藥師如來坐像은 비록 頭部를 결실한 破佛이지만 조각수법이 양호한 고려시대의 불상으로 추정되는데 1980년경에 도난당하여 행방을 찾을 수 없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청주지역의 佛敎遺蹟 가운데 廢寺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문헌이나 명문유물을 통하여 寺名을 알 수 있는 有名寺址 가운데 逸名寺址 18개소 등 모두 46곳의 폐사지를 조사하였으나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有名寺址 가운데 그 정확한 소재지를 알 수 없는 寺址도 13개소나 있다.

현재 청주지역의 폐사지는 완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절터로 구전되는 곳을 조사하여 보면 실제 아무런 유구나 유물도 없는 경우가 많으며 《輿地圖書》의 坊里條에 기록된 사찰은 일부 寺刹條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 있으나 대부분은 작은 암자에 불과해서인지 玉溪寺 등 10개 사찰은 坊里條에만 기록되어 있다.

폐사지의 존립시기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삼국시대의 가장 확실한 寺址는 신라 神文王 6년(686)에 건립된 寺蹟碑가 있는 산직말寺址와 一光三尊石佛이 있는 飛中里寺址 등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작은 암자터로 보이는 寺址는 《輿地圖書》의 坊里條에 寺名이 보이는 寺址이다.

金銅佛이 출토되었거나 石佛이 남아 있는 寺址는 句陽寺址·金生寺址·山德里寺址와 內谷洞寺址·飛中里寺址·靈下里寺址·閑溪里寺址·上鉢里寺址·槐亭里寺址·倉里寺址·塔里寺址 등이며 靈下里寺址·內揪里寺址·荊洞里寺址의 불상은 이미 조사보고된 바 있으나 그 후에 반출되어 그 행방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石塔이 유존하는 寺址는 塔洞寺址와 靈下里寺址·桂山里寺址·靑龍里寺址 정도이다.

金鐘과 같은 귀중한 유물이 발굴 또는 발견된 寺址는 興德寺址를 비롯하여 句陽寺址와 興

泉寺址가 대표적이다.

끝으로 발굴조사 또는 지표조사등의 정밀한 조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寺址로는 남아 있는 유구나 출토유물 또는 寺域의 규모 등을 종합해 볼 때 興泉寺址·九龍寺址·松泉寺址·石岩寺址·靈下里寺址·槐亭里寺址 등 7개 ss寺址를 꼽을 수 있다.